

# '세밀 폭설' 광주·전남, 출근길 '혼잡'

### 광주와 전남 17개 시·군 대설특보...출근길 차량 '눈길 서행'

### 시내버스 우회·단축 운행·산간도로 등 4곳 차량 통행 제한

세밀 폭설이 내린 광주·전남 곳곳에서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지거나 크고작은 사고가 잇따랐다.

일부 도로와 하늘·바닷길의 통행도 통제됐다.

30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광주 15.7cm, 장성 13.2cm, 화순 12.1cm, 담양 8.4cm, 나주 6.7cm, 곡성 4.2cm, 장흥 유치 3.5cm, 영암 학산 2.3cm, 무안 2.1cm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화순·장성·담양에는 대설경보가 발령돼 있다. 목포·나주·무안·장흥·영광·함평·영암·구례·곡성·강진·해남·완도·진도·신안 등 전남 14개 시·군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밤부터 많은 눈이 내리면서 광주·전남 주요 도로에선 제설 작업이 펼쳐

졌으나, 이날 오전 출근길 대란이 빚어졌다.

광주시는 빗고을로·상무대로·무진로·동운고가·필문대로·대남대로·2순환도로 등 도심 주요 도로 148개 노선(416km)에서 제설 작업을 벌였다.

시내버스 3개 노선도 우회·단축 운행했다. 장등동에서 출발하는 187번 버스는 무등산전망대 등 일부 구간을 우회 노선으로 운행한다. 효령~죽곡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도 고속도로·주요 국도·지방도에서 제설 작업을 벌였다. 일부 도로는 통행이 제한됐다.

동행 통제 도로는 ▲진도 의신면 윤림산방~고군변 향토리 윤림산방로

1.5km 구간 ▲진도 의신면 대명리조트 진입 고개(송군길) 1km 구간 ▲구례 산동면·곡성 고달면 861호 지방도 14km 구간 등 3곳이다.

상습 결빙 산간도로인 구례 천은사~도계 1.4km 구간도 이날 15일부터 차량 통행 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눈길에 미끄러지는 크고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9시39분께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한 이면도로에선 25인승 시내버스 1대가 눈길에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다행히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고 운전 기사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오전 8시께 나주 세지면 한 도로에서는 SUV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와 충돌했다.

두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앞서. 오전 5시30분께에는 광주 광산구 무안~광주고속도로 호남대 터널 인근에서 승용차 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도 출근길 추돌 사고가 속출, 교통 혼잡이 가중됐다.

강풍을 동반한 폭설 영향으로 하늘길·바닷길도 끊겼다.

이날 오전 광주공항은 김포·제주를 오가는 왕복 항공기 18편이 모두 결항했다. 여수공항을 여객기 운항도 6편 모두 취소됐다.

무안국제공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다음달 말까지 편성된 국내·국제선이 없다.

목포 26개 항로·45척, 여수 10개 항로·12척, 완도 13개 항로·20척 등 전남 서·남해상을 오가는 여객선 49개 전 항로·77척도 항구에 발이 묶였다.

지리산·무등산·내장산·월출산 등 지역 내 주요 국립공원 탐방로도 전면 통제됐다.

김미희기자

### 목포해경, 풍랑주의보 속 표류 예인선 등 2척 구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바다에서 표류하던 예인선 등 2척이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30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남 오후 10시37분께 전남 신안군 자은도 북쪽 4.6km 해상에서 울산선적 124t급 예인선 A호와 600t급 부선 B호 등 2척이 표류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호는 크레인바지선인 부선 B호를 예인하던 중 기상악화로 예인줄 220m가 절단되면서 표류하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들 선박에는 27명이 승선해 있었으며, 해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일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정을 급파해 절단된 예인줄이 A호의 좌현 스크루에 감겨있는 것을 발견했고, 승선원과 선박의 안전상태를 확인했다.

해경에 의해 긴급 예인되던 이들 선박은 목포인근 해상에서 선주가 섬외한 민간구조 예인선에 인계돼 이날 오전 목포 남항부두에 무사히 입항했다.

A호는 지난 25일 오후 2시께 충남 서산 대산항을 출항해 목포로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주차장서 벤츠 훔쳐 무면허 운전한 10대 입건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을 훔쳐 달아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생 A(15)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후 9시49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27일 오전 3시30분께 남동구 한 도로에서 A군을 붙잡았다.

### 음주운전하던 30대 트레일러 추돌, 차량 전소

30일 오전 2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 분기점 인근에서 술에 취해 LF쏘나타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앞서 가던 트레일러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LF쏘나타 차량이 불에 타 전소되는 등 97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LF쏘나타 운전자 A(33)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 수입차 빌려 대포차로 날린 조폭...술값 안내고 행패 부려

지인과 사업가 등이 리스로 뽑은 고가의 수입차를 빌려 대포차로 판매한 조직폭력배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폭력사건에 휘말려 구속됐다.

청주형무소경찰서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술값 4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폭력행위 등)로 A(38)씨를 구속했다. 30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주지역 폭력조직 관리 대상인 A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별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수입차를 리스로 출고해 주면 매월 할부 요금을 갚겠다"고 지인 등을 속여 차량을 빌려 싼값에 대포차로 팔아넘기고, 리스 비용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와 대전지역 피해자만 20여 명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30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벤츠, BMW 등 고가의 차량을 빼앗기고, 차량 리스비용까지 떠안게 됐지만 대포차로 넘겨진 차량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다.

A씨는 10억 원을 호가하는 청주지역 아파트에 살고, 충남 논산에서 주유소, 청주에서 유통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지인 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피의자가 구속됨에 따라 폭력 사건과는 별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가 차량 번호판과 등록증을 위조하는 중고차 매매업자나 다른 조직폭력배와 연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광주·전남 눈길 교통사고 잇따라...1명 사망

### 고흥 눈길 달리다 미끄러진 SUV 추락...운전자 숨져

### 화물차 단독 사고로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 정체



30일 오전 전남 해남군 산이면 한 이면도로에서 25인승 시내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광주·전남에 매서운 세밀 한파와 함께 폭설이 내리면서 눈길에 미끄러지는 교통 사고가 잇따랐다.

30일 광주·전남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6분께 고흥군 봉래면 편도 1차선 산간도로에서 A(51)씨가 몰던 SUV 차량이 산

중턱 약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내리막길 구간에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전 10시30분께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111.3km 도로에선 B(57)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B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또 사고 여파로 도로 1·2차선과 갓길 통행이 통제돼 지·정체 현상이 3시간 가량 이어졌다.

한때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천안 방면 진입로, 호남고속도로 장성분기점 구간도 통제됐다. 현재는 통행이 정상화됐다.

경찰은 화물차기 노면이 얼어붙은 구간을 달리다 난 사고로 추정,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날 오후 1시53분께 해남군 산이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선 미끄러진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돌, 경상을 입은 운전자 C(39)씨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오전 11시께 함평 해보면 한 도로에선 주행 중인 D(56)씨의 승용차가 미끄러진 뒤 전복됐다. D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오전 9시39분께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 한 이면도로에서도 25인승 시내버스 1대가 미끄러져 오른쪽으로 넘어져 홀로 타고 있던 운전 기사가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오전 8시께 나주 세지면 한 도로에서 SUV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와 충돌했다.

두 차량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광산구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호남대 터널 인근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밖에도 광주 도심 곳곳에서도 출근길 차량 추돌 사고가 속출, 교통 혼잡이 가중됐다.

한편, 광주와 화순·장성·담양에는 대설 경보가 내려져 있다. 목포·나주·무안·장흥·영광·함평·영암·구례·곡성·강진·해남·완도·진도·신안 등 전남 14개 시·군에도 대설 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누적 적설량은 광주 16.3cm, 장성 14.4cm, 화순 13cm, 담양 7.9cm, 신안 흑산도 6.8cm 등으로 나타났다.

김민정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